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尹暢烈*

I. 緒 論

風寒暑濕燥火의 天之六氣는 현실적으로 三陰三陽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五臟六腑의 本氣는 三陰三陽 經脈을 통하여 우리 인체에 분포하고 있다. <內經>에서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를 本氣라 하고 三陰三陽을 標氣라 말하고 있으며 標氣와 表裏관계에 있는 기운을 中氣 또는 中見之氣라 부르고 있다.

素問의 至眞要大論에서는 六氣의 標本에 따라 질병의 발생기전의 규율을 說明하고 있는데 “少陽太陰은 從本하고 少陰太陽은 從本從標하고 陽明厥陰은 不從標本하고 從乎中”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夫標本之道는 要而博하며 小而大하니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라 言標與本하면 易而勿損이오 察本與標하면 氣可令調오 明知勝復하면 爲萬民式하나니 天之道畢矣라”²⁾고 하여 그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後世에 張志聰과 黃元御 등은 傷寒論을 註解하면서 六經氣化의 이론으로써 病證과 治法을 論하고 있다. 이처럼 六氣 標本の 應病規律은 自然界의 氣候變化가 인체에 일으키는 疾病에 대한 규율을 파악하고 治法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시되는 이론이나 내용이 난해하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저자는 역대 의가의 이론을 研究하여 新知見을 얻었기에 斯界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標本中氣의 概念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 “少陽之上에 火氣治之하니 中見厥陰하고 陽明之上에 燥氣治之하니 中見太陰하고 太陽之上에 寒氣治之하니 中見少陰하고 厥陰之上에 風氣治之하니 中見少陽하고 少陰之上에 熱氣治之하니 中見太陽하고 太陰之上에 濕氣治之하니 中見陽明하니 所謂本也라 本之下는 中之見也

오 見之下는 氣之標也니 本標不同에 氣應이 異象이니이다”³⁾라 하였다. 먼저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本氣	火氣	燥氣	寒氣	風氣	熱氣	濕氣
中氣	厥陰	太陰	少陰	少陽	太陽	陽明
標氣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本氣는 근본이 되는 氣運이고 標氣는 이 근본에서 파생된 氣運으로 本末의 관계 또는 本質과 現象의 관계를 이룬다. 張介賓은 이 標本の 관계에 대해 “標는 末也오 本은 原也니 猶樹木之有根枝也라 分言之則根枝異形이나 合言之則標出乎本이라”⁴⁾고 핵심적으로 言及하고 있다. 위에서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는 기후변화의 근본이 되므로 在上之本氣가 되고 여기서 파생된 三陰三陽은 在下之標氣가 된다.

中氣는 本氣之下, 標氣之上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中氣라 하는데 모두 標氣와 表裏相合의 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中氣는 標氣와 寒熱, 燥濕, 風火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호 밀접한 轉化의 원리가 內在하고 있다. 즉 寒熱은 寒이 極하면 熱로 轉化되고 熱이 極하면 寒으로 轉化되며 또 寒이 不足하더라도 熱로 轉化되며 熱이 不足하더라도 寒으로 쉽게 轉化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燥濕도 역시 燥氣가 有餘하면 燥가 되지만 不足하면 濕이 되며 濕氣가 有餘하면 濕을 이루지만 不足하면 燥가 된다. 風火의 관계는 木生火의 相生관계가 있어 風은 火로 쉽게 轉化되고 또 熱極生風하므로 兩者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中氣(中見之氣)는 本氣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는 氣이며 또한 六氣가 일정한 한계에 이르렀을 때 반대방면으로 轉化할 수 있는 氣라고 말할 수 있다.

張介賓은 標本中氣에 대해 自然界의 六氣와 經絡의 두 방면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내용이 대단히 합리적이다. 먼저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蓋上之六氣는 爲三陰三陽之本이요 下之三陰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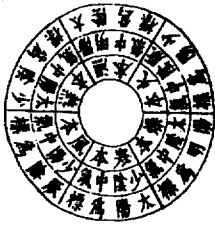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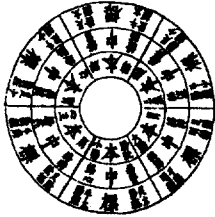
2) 上揭書 p.186.

3) 上揭書 p.132.

4)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08.



六經之氣는 以風寒熱濕火燥로 爲本하고 三陰三陽으로 爲標하며 本標之中見者로 爲中氣니 中氣者는 如少陽厥陰이 爲表裏오 陽明太陰이 爲表裏오 太陽少陰이 爲表裏니 表裏相通하면 則彼此互爲中氣라



臟腑經絡之標本은 臟腑는 爲本居裏하고 十二經은 爲標居表하며 表裏相絡者는 爲中氣居中이라 所謂相絡者는 乃表裏互相維絡이니 如足太陽膀胱經이 絡于腎하고 足少陰腎經이 亦絡于膀胱也라 餘放此라

陽은 爲六氣之標요 而兼見于標本之間者는 是陰陽表裏之相合 而互爲中見之氣也라 其于人之應之者亦然이라 故足太陽少陰二經이 爲一合而膀胱與腎之脈이 互相絡也오 足少陽厥陰이 爲二合 而膽與肝脈이 互相絡也오 足陽明太陰脈이 爲三合 而胃與脾脈이 互相絡也오 手太陽少陰이 爲四合 而小腸與心脈이 互相絡也오 手少陽厥陰이 爲五合 而三焦與心包絡之脈이 互相絡也오 手陽明太陰이 爲六合 而大腸與肺脈이 互相絡也니 此卽一表一裏 而陽中有陰하며 陰中有陽之義라⁵⁾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⁶⁾

Ⅲ. 標本中氣의 應病規律

少陽太陰은 從本하고 少陰太陽은 從本從標하고 陽明厥陰은 不從標本하고 從乎中하는 이치에 대해 가장 먼저 說明을 한 사람은 王冰이다. 그는 註에서 "少陽之本은 火요 太陰之本은 濕이니 本末同故로 從本也라 少陰之本은 熱이요 其標는 陰이며 太陽之本은 寒이요 其標는 陽이니 本末異故로 從本從標라 陽明之中은 太陰이요 厥陰之中은 少陽이니 本末與中不同故로 不從標本하고 從乎中也라 從本從標從中은 皆以其爲化主之用也일새라"⁷⁾라 하였다.

이 內容은 少陽과 太陰은 本末의 陰陽屬性이 동일하므로 從本하여 病이 발생하고 少陰과 太陽은 本末의 陰陽屬性이 相異하므로 從本從標하여 病이 발생하며 陽明厥陰은 本末과 中氣의 陰陽屬性이

달라서 標本을 쫓지 않고 中氣를 쫓아서 病이 발생하게 된다는 說明이다. 그런데 少陽과 太陰은 本氣와 標氣의 陰陽속성이 서로 같고 太陽과 少陰은 本氣와 標氣의 陰陽屬性이 서로 다른데 馬蒔는 이처럼 다른 이유에 대해서 "瓜蒌蒂苦하고 蔥白葉靑하며 蓼補蘆瀉하고 麻黃發汗根節止汗之類"⁸⁾와 동일한 이치라고 說明하였다.

그러나 이 說明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內容이 너무나 많다. 그리하여 張介賓은 王冰의 內容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說明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內容이다.

"愚는 按컨대 少陽太陰이 從本者는 以少陽은 本火而標陽이오 太陰은 本濕而標陰이니 標本同氣故로 當從本이라 然少陽太陰이 亦有中氣而不言從中者는 以少陽之中은 厥陰木也니 木火同氣라 木從火化矣 故로 不從中也며 太陰之中은 陽明金也니 土金相生이라 燥從濕化矣 故로 不從中也라 少陰太陽從本從標者는 以少陰은 本熱而標陰이오 太陽은 本寒而標陽이니 標本異氣 故로 或從本 或從標 而治之有先後也라 然少陰太陽에 亦有中氣로대 而少陰之中은 太陽水也오 太陽之中은 少陰火也니 同于本則異于標하고 同于標則異于本 故로 皆不從中氣也라 至若陽明厥陰이 不從標本하고 從乎中者는 以陽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140-141.

7)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92.

8)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39.

5)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p.824-825.

明之中은 太陰濕土也니 亦以燥從濕化矣오 厥陰之中은 少陽火也니 亦以木從火化矣라 故陽明厥陰은 不從標本 而從中氣也라 要之컨대 五行之氣는 以木遇火 則從火化하고 以金遇土 則從濕化하니 總不離于水流濕 火就燥하야 同氣相求之義耳라 故로 本篇에 曰 從本者는 化生于本하고 從標本者는 有標本之化하고 從中者는 以中氣로 爲化也라하니 必詳明 標本化生之所自면 則知所以調治之矣라 故로 張子和 標本運氣歌에 曰 少陽從本爲相火오 太陰從本濕土坐라 厥陰從中火是家오 陽明從中濕是我라 太陽少陰標本從하니 陰陽二氣相包裹라 風從火면 斷汗之宜오 燥與濕이면 兼下之可라 萬病能將火濕分하니 徹開軒岐無縫鎖라 又其十二經水火分治歌 其義大同하니 皆本諸此하니 詳載儒門事親第十四卷中이니라

愚按六經從本從標從中者는 盖以同類相從하야 歸六氣于水火니 總萬病于陰陽 二者而已니 此誠造化自然之道라 然而經旨深遠하야 未易推測하니 自啓玄子以來로 註皆未得이라 及戴人張子和始發明火濕二字之義하니 甚得其要하야 意謂標本相從之理 止于是矣라 繼自劉宗厚而下로 莫不宗之오 愚亦深以爲然이나 獨惜其治法之有未盡善者라 爲風從火하면 斷汗之宜와 燥與濕하면 兼下之可也는 此概指六氣從化가 皆爲有餘하야 而欲以汗下二法盡之어니와 若然 則諸病之化가 豈盡屬有餘而必無不及者耶아 殊失聖經本意矣라 在內經之言컨대 盖特舉陰陽所化之理하니 本非謂其有餘로대 而子和之意는 則但見其有餘之爲病 而不知其不及之難化也라 夫六經之氣는 時有盛衰하니 氣有餘則化生太過하고 氣不及則化生不前하야 從其化者는 化之常이니 得其常則化生不息하고 逆其化者는 化之變이니 值其變則強弱爲災니 如木從火化에 火盛則木從其化니 此化之太過也오 陽衰則木失其化니 此化之不前也라 燥從濕化에 濕盛則燥從其化니 此化之太過也오 土衰則金失其化니 亦化之不前也라 五行之氣는 正對俱然하니 此本標化生之理所必然者라 化而太過者는 宜抑하고 化而不及者는 不宜培耶아 治失其當이면 又安得謂之善哉리오 知乎此면 則可與言化生之妙用矣리라⁹⁾

여기에서 景岳은 少陽 太陰은 本標의 氣가 同一하여 從本하지만 中氣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少陽의 中氣는 厥陰木으로 木氣가 火氣로 轉化되기 때문이며 太陰의 中氣는 陽明金으로 燥氣가 濕氣로

轉化되기 때문에 中氣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少陰 太陽에 대해서도 王氷과 비슷한 설명을 하고 역시 여기서도 中氣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少陰火와 太陽水는 서로 中氣가 되는데 예를 들어 少陰火를 기준하여 太陽水를 中氣로 할 때 中氣의 標氣인 太陽이 火와 陰陽屬性이 一致할 때 少陰과는 다르게 되며(同于本則異于標), 中氣의 本氣인 水가 少陰과 陰陽屬性이 一致할 때 火와는 다르게 되어(同于標則異于本), 中氣를 쫓지 않는다 하였다.

끝으로 陽明과 厥陰에 대해 陽明의 中氣는 太陰濕土니 燥氣가 濕氣로 轉化되기 때문이며 厥陰의 中氣는 少陽火니 木氣가 火氣로 轉化되기 때문에 中을 쫓아서 變化한다고 하였다.

이 설명은 王氷의 생략된 내용을 補充해 줄 뿐만 아니라 陰陽의 轉化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으므로 標本中氣의 疾病發生 機轉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상의 內容은 《儒門事親·卷十四》에는 〈辨十二經水火分治法〉과 서로 비교하면서 研究해보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된다.

“膽與三焦尋火治오 肝和包絡都無異라
脾肺常將濕處求오 胃與大腸同濕治라
惡寒表熱小勝溫이오 惡熱表寒心腎熾라
十二經 最端的이니 四經屬火 四經濕이라
四經有熱有寒時에 攻裏解表細消息이라
濕同寒 火同熱하니 寒熱到頭无兩說하라
六分分來半分寒이오 寒熱中停眞浪息이라
休治風 休治燥하라 治得火時風燥了라
當解表時莫攻裏오 當攻裏時莫解表라
表裏如或兩可攻이나 後先內外分多少라
敢謝軒岐萬世恩인댄 爭奈醜鷄笑天小라”¹⁰⁾
이를 翻譯하면 다음과 같다.

膽經과 三焦經은 火로써 治療하고 (膽과 三焦는 모두 少陽經이고 少陽은 從本하고 本氣가 火이므로 火로써 治療하라고 한 것이다.) 肝經과 胞絡도 모두 다르지가 않다.(역시 火로써 治療하라는 뜻인데 厥陰은 從中하고 中氣가 少陽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脾經 肺經은 항상 濕으로 治療하고 (太陰은 從本하고 本氣가 濕이기 때문이다.) 胃經과 大腸經은 역시 濕으로 治療하라.(陽明은 從中

9)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140-141.

10) 張從正撰 張海嶺等校注 儒門事親校註 鄭州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175.

하고 中氣가 太陰이므로 濕으로 治療하라 한 것이다.)

惡寒 發熱하면 小腸經과 膀胱經을 따뜻하게 하고(太陽은 從本從標하므로 惡寒 發熱의 症狀이 나타난다.) 惡熱 表寒하면 心經과 腎經이 病든 것이다.(少陰은 從本從標하므로 惡熱과 表寒의 症狀이 나타난다.) 十二經脈은 가장 철저히 이해해야 되니 네 經脈은 火에 屬하고(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手厥陰心包經 足厥陰肝經) 네 經脈은 濕에 屬한다.(手太陰肺經 足太陰脾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네 經脈에 熱症이 있고 寒症이 있을 때(手太陰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陰心經 足少陰腎經) 攻裏하고 解表할 것을 잘 살펴 시행하라. 濕은 寒과 비슷하고 火는 熱과 비슷하니 寒과 熱을 철저히 살펴서 混同하지 말라. 臨床에서 寒熱에 속하는 疾病을 여섯으로 나누어 볼 때 寒證에 속하는 것은 단지 半分밖에 없으니 寒證과 熱證이 各各 半이라는 말은 정말로 헛된 말이다. 風을 다스리지 말고 燥를 다스리지 말라. 火를 다스리면 風과 燥는 사라지게 된다. 解表할 때 攻裏하지 말고 攻裏할 때 解表하지 말라. 表裏證이 있을 때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으나 先後와 內外의 多少를 분간하여 시행하라. 감히 黃帝와 岐伯이 萬世에 끼친 恩惠를 사려하고자 할진댄 어찌 눈에늘이가 하늘이 작다고 비웃는 것을 다투라(醜鷄는 蟻蠓蟲, 눈에늘이과에 속하는 작은 곤충, 풀숲에 서식하며 여름에 사람들의 눈앞에 어지럽게 떴지어 날며 뱅뱅돌기도 하고 아래위로 가물거리기도 함) 이상의 내용은 標本中氣의 應病規律에 따른 十二經病의 治療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水火를 분명히 認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水는 陰이고 火는 陽인데 臨證時 陰陽을 정확히 파악하면 執簡馭繁하는 功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疾病中에는 寒證이 아주 적고 熱證이 많으며 風 燥의 疾病은 治火를 먼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火는 陽邪로 그 性이 炎熱하여 火鬱生風하고 火熱傷津하므로 治火가 治本하는 方法이기 때문인 것이다.

張琦는 素問釋義의 註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陽은 手足二經이 同氣 故로 皆從火治라 足太陰은 以濕土主令하고 手太陰이 從而化氣 故로 太陰은 皆從濕治라 手足少陰은 本爲熱 標爲陰이오 手足太陽은 本爲寒 標爲陽 故로 或從本하며 或從標라 陽明은 以土而從化燥氣 故로 不從本之燥하고

亦不從標之陽而從中見之太陰이오 厥陰之本爲風 標爲陰 故로 不從本之風하고 不從標之陰而從中見之少陽하니 蓋治風에 必先治火오 非謂厥陰之氣不從風化也라”¹¹⁾ 이 가운데 風을 治療할 때 반드시 먼저 火를 治療하라는 뜻이지 厥陰之氣가 風火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內容은 참고의 가치가 있다.

方藥中은 少陽太陰從本과 少陰太陽從本從標에 대해서 옛사람과 비슷하게 설명하였지만 陽明厥陰의 不從標本하고 從乎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특한 설명을 가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소개한다.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의 의미는 厥陰은 비록 風에 속하고 溫에 속하나 發展하고 轉化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溫이 熱로 轉化할 수 있고 風이 火로 轉化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야만 한다. 陽明은 비록 涼에 속하고 燥에 속하나 發展하고 轉化하는 측면에서 보면 涼이 寒으로 轉化할 수 있고 燥가 濕으로 轉化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六氣의 變化는 그들 자체의 變化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 사이의 轉化問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어찌서 原文에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厥陰과 陽明도 標와 本이 陰陽屬性上 一致하지 않는 情況을 알아야만 한다. 厥陰은 비록 陰이지만 本氣는 風과 溫으로 陽에 屬한다. 溫이 發展하면 熱이 되므로 따라서 그 轉化는 溫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熱이 되는 方面의 變化를 응당 고려해야만 한다. 六氣의 六步主時로 부터 보건대 厥陰은 初之氣로 반드시 由溫向熱의 轉化를 하게 된다. 厥陰의 中氣는 少陽이고 少陽은 火熱을 主하므로 厥陰은 中氣를 쫓아서 變化한다. 陽明은 비록 陽에 屬하지만 本氣는 燥와 涼으로 陰에 屬한다. 燥의 반대는 濕이므로 따라서 그 轉化는 由燥向濕하는 方面의 轉化를 응당 고려해야만 한다. 陽明의 中氣는 太陰이고 太陰은 主濕하므로 陽明은 中氣인 太陰을 쫓아서 變化한다. 또한 언급해야 할 사항은 濕의 發生은 흔히 因熱而生濕하는데 六氣의 六步中에서 四之氣는 由熱轉濕하여 濕熱이 交蒸하는 情況이 나타나지만 濕이 由寒而生濕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陽明이 中氣로 부터 變化하는 것은 주로 寒濕方面으로 向한 轉化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것은 因熱生濕과 區別

11) 陸拯主編 近代中醫珍本集 中國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p.298.

해야만 한다. 臨床에서 보건대 傷寒의 六經에서 陽明이 太陰으로 轉化하는 것이 바로 이 예에 屬한다. 여기에서는 또한 濕의 發生이 因熱生濕할 수도 있고 因寒生濕할 수도 있다는 것을 提示했다. 濕은 마땅히 濕熱과 濕寒의 둘로 크게 區分하여야 한다.¹²⁾

IV. 標本中氣理論의 傷寒論에 대한 應用

運氣의 六化와 六經氣化는 관계가 대단히 밀접한데 標本中氣從化規律은 이들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율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을 傷寒論의 辨證論治에 깊이 응용한 대표적인 醫家로는 張志聰과 黃元御가 있는데 이들은 六經病의 解釋과 治法 및 六經轉變에 六氣標本의 理論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標本中氣從化理論은 陰陽互根, 寒熱相移의 理論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기초로서 傷寒論의 六經傳變에 대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三陰三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 소개하는 王力의 主張은 전통적인 學說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참고할 가치가 있으므로 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太陽

太陽은 足太陽膀胱과 手太陽小腸을 包括하지만 하나는 水에 속하고 하나는 火에 속한다. 그러나 太陽과 少陰은 서로 表裏가 되어 中見之氣가 되고 經絡은 서로 絡屬하며, 經氣는 서로 相通하고 있다. 따라서 太陽과 少陰은 寒과 熱을 서로 조절한다. 太陽之寒이 少陰本熱의 濕煦한 기운을 받으면 너무 차지 않게 되며, 少陰之熱이 太陽寒水의 制約을 받으면 너무 熱하지 않게 된다. 標本中氣의 理論에 따라 太陽은 或 從標化熱하기도 하고 或 從本化寒하기도 하는데 이는 人體正氣의 盛衰, 특히 衛氣의 強弱과 腎氣의 充盛狀態에 따라 決定된다.¹³⁾

張志聰이 傷寒論集注에서 標本中의 從化內容으로 太陽病을 註解한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太陽之爲病은 脈浮하며 頭項強痛而惡寒이라

○ 惡寒者는 惡寒氣之寒也니 蓋太陽之上에 寒氣主之하니 以寒爲本하며 以熱爲標故也라¹⁴⁾

太陽病이 或已發熱하며 或未發熱이나 必惡寒體痛嘔逆하며 脈陰陽이 俱緊者는 名爲傷寒이라

○ 太陽病者는 病太陽通體之表氣也라 或已發熱者는 感太陽之標陽 而爲熱也오 或未發熱者는 寒邪始襲于皮毛하여 未得太陽之熱化也라 太陽은 以寒爲本 故로 無分已未發熱 而必惡寒也라¹⁵⁾

2. 陽明

陽明은 足陽明胃와 手陽明大腸을 包括하는데 둘 가운데 하나는 燥土이고 하나는 燥金으로 성질이 모두 燥하다. 그러므로 陽明은 燥를 根本으로 삼는다. 太陰濕土의 滋潤을 받아 燥濕이 조절되기 때문에 陽明은 일정한 燥도를 유지하여 疾病에 이르지 않는다. 標本中氣의 理論에 의하면 陽明之燥는 濕으로 轉化되는데 燥가 濕을 이기면 常이지만 濕이 燥를 이기면 變이 된다. 따라서 “實則陽明虛則太陰”의 說이 나오게 된 것이다. 傷寒論196條의 “陽明病에 若中寒者가 不能食하며 小便不利하며 手足濇然汗出하면 此欲作固瘕라 必大便이 初硬後溏하리니 所以然者는 以胃中冷하여 水穀不別故也라”의 내용이 이것이다. 이외에 陽明은 標氣는 陽이고 本氣는 燥하여 陽氣가 본래 旺盛하므로 비록 陰邪를 받더라도 陽熱로 化하게 되므로 쉽게 本氣의 燥가 太過한 承氣湯證을 이루거나 太陰之液을 灼傷하여 麻子仁丸證을 形成한다.¹⁶⁾

傷寒論集注의 관련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問曰 病有太陽陽明하며 有正陽陽明하며 有少陽陽明은 何謂也오 答曰 太陽陽明者는 脾約이 是也오 正陽陽明者는 胃家實이 是也오 少陽陽明者는 發汗利小便已로대 胃中이 燥煩實하며 大便難이 是也라 ○陽明者는 火燥熱之氣也라 天有此陽明之氣하고 人亦有此陽明之氣라 經云陽明之上에 燥氣治之라하고 不從標本하고 從中이라하니 見太陰之濕

13)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年 p.203.

14) 高世栻纂集 張隱庵傷寒論集注 台北 新文豐 出版公司 1985年 p.7.

15) 上同.

16)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年 p.204.

12)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年 p.492.

化니라¹⁷⁾

일반적으로 陽明의 胃腸病은 모두 太陰之濕을 爲主하여 치료해야만 하니 예를 들어 平胃散中의 蒼朮厚朴 등은 모두 脾濕을 치료하는 약재이다.¹⁸⁾

3. 少陽

少陽은 膽과 三焦를 包括하는데 둘 모두 相火를 관장하므로 少陽의 本氣는 火가 된다. 標本中氣理論에 따르면 少陽은 標氣와 本氣가 同氣이기 때문에 火를 쫓아서 變化한다. 傷寒論263條의 少陽病提綱인 “少陽之爲病은 口苦咽乾目眩也”는 本氣를 따라 火로 變化한 膽火가 上炎한 것을 나타낸 내용이다. 만일 膽虛火衰하면 흔히 쉽게 中氣를 따라 變化하여 內陷厥陰하니 이른바 “實則少陽, 虛則厥陰”이 이것이다. 少陽은 火로써 本氣를 삼기 때문에 膽氣는 火가 있어야만 비로소 升發하게 된다. 肝膽은 서로 表裏를 이루고 經氣도 相通한다. 少陽膽火는 肝血의 涵濡로 말미암기 때문에 비록 本氣는 火이고 標氣는 陽이지만 偏亢한데 이르지 않는다. 아울러 標陽本火의 特性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록 陰邪에 感受되더라도 쉽게 陽熱로 化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陽病은 흔히 火熱에 치우치게 된다.¹⁹⁾

傷寒論集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少陽之爲病은 口苦咽乾目眩也라 ○ 此는 論少陽風火主氣라 夫少陽之上에 相火主之하니 標本이 皆熱故로 病則口苦咽乾이라 六元正紀論에 云少陽所至爲飄風燔燎라하니 故로 目眩이라 目眩者는 風火相煽也라.²⁰⁾

從本者는 化生于本하는데 化生은 病之化生을 말하는 것이니 病이 本氣에서 生하는 것이다. 少陽의 口苦, 耳聾, 頭痛, 目眩 등은 火에서 生한 本氣이므로 治療는 泄火清熱을 爲主로 해야 한다.²¹⁾

4. 太陰

太陰은 足太陰脾와 手太陰肺를 포괄하는데 하나는 陰土이고 하나는 涼燥로 屬性이 陰에 偏重되므로 太陰은 濕으로 本氣를 삼는다. 標本中氣의 이론에 의하면 太陰은 標本이 同氣로 本氣를 쫓아 濕으로 變化한다. 傷寒論에서 太陰이 濕盛한 病證은 常이 되고 燥化하면 變이 된다. 太陰病提綱

273조의 “太陰之爲病은 腹滿而吐하며 食不下하며 自利益甚하며 時腹自痛하나니 若下之면 必胸下結硬이라”는 太陰이 濕化한 證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특수한 證狀하에서 中見之氣인 陽明의 燥火를 쫓아 實로 轉化하는 경우가 있는데 279조의 “本太陽病을 醫反下之하야 因而腹滿時痛者는 屬太陰也니 桂枝加芍藥湯으로 主之오 大實痛者는 桂枝加大黃湯으로 主之니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太陰은 정상적인 情況下에서 陽明과 함께 燥濕을 調節하므로 不病하지만 만약 脾陽이 虛하며 中氣가 陷下하면 쉽게 직접적으로 寒邪를 받아 表寒이 乘虛內陷하거나 혹은 濕化가 太過하여 여러 가지 病變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太陰濕化의 常과 變이 이루어지는 關鍵은 陽氣, 특히 中氣의 盛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²²⁾

傷寒論集註에서 太陰病條의 內容을 氣化學說로 註釋한 部分은 아래의 內容이다.

“太陰爲病에 脈弱하며 其人이 續自便利하면 設當行大黃芍藥者라도 宜減之니 以其人이 胃氣弱하야 易動故也라 ○ 此因上文加芍藥大黃하야 而申言胃氣弱者는 宜減也라 太陰爲病에 脈弱하며 其人이 續自便利하면 乃太陰陰濕이 爲病하야 土氣內虛하야 不得陽明中見之化니 設客邪內實而當行大黃芍藥者라도 亦宜減之니 減者는 少其分兩也니 以其人이 胃氣虛弱而易動故也라 治太陰者는 尤當以胃氣로 爲本矣”라²³⁾

일반적으로 太陰의 腹脹泄瀉, 或浮腫 등의 증상은 從本하여 濕에서 생긴 것으로 利濕을 爲主하여 治療한다.²⁴⁾

5. 少陰

少陰은 手少陰心 및 足少陰腎을 包括하는데 하나는 君火이고 하나는 相火이므로 少陰은 熱로써 根本을 삼는다. 標本中氣의 理論에 의하면 少陰은

17) 高世栻纂集 張隱庵傷寒論集注 台北 新文豐 出版公司 1985年 p.7.

18) 王琦等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79年 p.445.

19)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年 p.204.

20) 高世栻纂集 張隱庵傷寒論集注 台北 新文豐 出版公司 1985年 p.73.

21) 王琦等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79年 p.445.

22) 楊力 上揭書 p.204.

23) 高世栻撰集 上揭書 p.76.

24) 素問今釋 p.445.

標陰本熱하여 標本이 異氣이므로 從本하여 寒化하기도 하고 從標하여 熱化하기도 하니 少陰病提綱 281條의 “少陰之爲病은 脈微細하며 但欲寐也”는 寒化證의 典型的인 모습이다. 寒化와 熱化의 一般規律은 寒化證은 變이 되고 熱化證은 常이 되니 傷寒論 303條의 黃連阿膠湯證은 少陰熱化證의 대표적인 處方과 症狀이다. 正常的인 情況下에서 少陰은 비록 熱로써 根本을 삼지만 결코 熱化가 太過하게 되지는 않고 腎水와 心血的 滋養으로 水火가 서로 調節되어 偏亢에 이르지 않는다. 만약 寒邪가 少陰에 直中하거나 혹 表虛하여 寒邪가 內陷하면 少陰의 寒化證으로 發展될 수가 있다. 少陰에서 火衰하면 寒化證이 되고 水虧하면 熱化證이 된다. 그러므로 少陰과 心腎水火에 치우치는 狀況은 少陰從化에 따라 決定이 된다.²⁵⁾

張志聰은 傷寒論集注에서 少陰病提綱條를 다음과 같이 註釋하고 있다.

“少陰之爲病은 脈微細하며 但欲寐也라 ○ 合下三節은 皆論少陰標本水火陰陽之氣라 少陰之上에 君火主之하니 本熱而標陰이며 火上而水下라 火之精이 爲神이오 水之精이 爲精이니 脈微者는 神氣微也오 細者는 精氣虛也니 此는 少陰水火爲病 而見於脈也라 少陰은 主樞야야 外內出入이로대 但欲寐 則神氣不能外浮 而陰陽樞轉不利니 此는 少陰陰陽爲病 而見於證也라 少陰標本은 不外水火陰陽 故로 此節은 首論水火陰陽而爲少陰病之總綱也라 ○ 太陽少陰은 本於先天一氣하고 並主寒水之精과 君火之神하니 夫精取汁於中焦하고 神內藏於血脈이라 是以로 太陽少陰 爲病而言脈也라”²⁶⁾

少陰은 從本從標하므로 疾病을 治療할 때 病標者는 治其標하고 病本者는 治其本하며 標本具病者는 標本具治之法을 採用할 수 있다.

例를 들어 傷寒의 少陰病初期에 脈搏이 沈細하고 體表가 도리어 發熱하면 麻黃附子細辛湯으로 少陰之裏를 溫하고 太陽之表를 解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從本從標의 發病機轉에 依據한 標本兼施의 方法인 것이다.²⁷⁾

6. 厥陰

厥陰은 足厥陰肝과 手厥陰心包絡을 包括한다. 肝은 風木이고 胞絡은 相火로 子가 母를 쫓아 變化하므로 風이 根本이 된다. 標本中氣의 理論에 의하면 厥陰의 中見之氣는 少陽인데 木火同氣의

觀點에 根據하여 木은 火를 쫓아서 變化하니 傷寒論 326條의 “厥陰之爲病은 消渴하며 氣上撞心하며 心中疼熱하며 飢而不欲食하니 食則吐衄하며 下之면 利不止라”는 바로 厥陰病의 木이 火를 쫓아서 變化한 症狀이다. 肝은 藏血을 主하고 胞絡火는 溫煦를 主하기 때문에 正常的인 情況下에서는 寒熱이 서로 調節되고 木火가 相濟가 된다. 胞絡火는 肝陰血의 도움을 얻어 안으로 收斂이 되는데 만약 肝陰血이 衰竭하게 되어 胞絡火가 收斂되지 못하면 쉽게 陰陽이 不調한 寒熱錯雜證이 생기게 된다. 이와는 달리 肝火가 지나치게 亢盛하면 木이 火를 쫓아 太過하게 되어 쉽게 厥陰의 熱證이 되고 膽火가 不足하게 되면 木이 火를 쫓아 不及하게 되어 쉽게 厥陰의 寒證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厥陰의 寒證 熱證의 轉化는 그 關鍵이 厥陰陰血의 盈虧 및 膽火의 盛衰에 달려있다.²⁸⁾

張隱菴은 厥陰病의 提綱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厥陰之爲病은 消渴하며 氣上撞心하며 心中疼熱하며 飢而不欲食하니 食則吐衄하며 下之면 利不止라 ○ 厥陰者는 陰之極也라 夫兩陰交盡을 是爲 厥陰이니 陰極而陽生 故로 厥陰은 不從標本하고 從中見少陽之氣化也라 厥陰之爲病에 消渴者는 經云 厥陰之上에 風氣主之하니 所謂本也라하니 病干本氣 故로 風消而渴也라 氣上撞心은 下焦之氣不和也오 心中疼熱은 中焦之氣不和也오 飢而不欲食은 上焦之氣不和也라 夫三焦者는 少陽也니 經云 本之下는 中之見也라하니 厥陰은 中見少陽 故로 有三焦之病也라 食則吐衄하며 下之면 利不止者는 乃 厥陰標陰爲病이니 經云 見之下는 氣之標也라하니 厥陰은 以陰寒으로 爲標오 衄는 乃 陰類니 不得陽熱之化 則頓生而吐라 下之則陰極而陽不生 故로 利不止라 愚는 按컨대 此節은 乃 厥陰爲病之總綱이 라²⁹⁾

厥陰은 不從標本하고 從乎中하니 治法도 不治標本而治中한다. 厥陰肝病은 흔히 肝風內動 肝陽上亢 相火妄行 頭暈 目眩 等症이 있으므로 清火熄風 平肝清鎮으로 治療하여야만 한다.³⁰⁾

26) 高世式撰集 上揭書 p. 76

27) 素問今釋 p.445

28) 楊力 上揭書 p.204

29) 高世式撰集 上揭書 p.86

30) 素問今釋 p.445

25) 楊力 上揭書 p.204

V. 結 論

風寒暑濕燥火 六氣의 標本中氣와 이것이 疾病을 일으키는 機轉인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의 內容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自然界에서 風寒暑濕燥火는 本氣가 되고 三陰三陽은 標氣가 되며 人體에서는 五臟六腑의 氣는 本氣가 되고 이것이 十二經脈에 分布한 經氣는 標氣가 된다.

2. 中氣는 本氣와 標氣사이에서 위치하여 標氣와 表裏配合의 關係가 있는데 寒熱 燥濕 風火의 相互關係가 있으며 本氣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氣이거나 一定한 상태에서 反對 方向으로 轉化할 수 있는 氣이다.

3. 三陰三陽의 從火理論은 王冰이 처음으로 註를 달고 以後 張介賓에 의해서 더욱 闡發되었는데 그는 木從火化와 土金相生에 의한 燥從濕火의 論理로써 구체적인 說明을 加하고 있다.

4. 張子和는 標本中氣의 從火에 따른 十二經病의 治療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膽 三焦 肝 胞絡은 火를 治療하고 脾 肺 胃 大腸은 濕을 治療하고 小腸 膀胱 心 腎은 寒 熱이 섞여 있으므로 올바르게 診斷한 후 治療할 것을 提示하였으며 寒證보다는 熱證이 훨씬 많다고 主張하였다.

5. 張琦의 “治風에 必先治火니 非謂厥陰之氣不從風化也”라는 內容은 三陰三陽의 全體로 擴大하면 本氣之化가 없는 것이 아니라 疾病發生의 一般的인 傾向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充分히 研究할 價値가 있는 內容이다.

6. 六氣의 標本中氣 理論을 傷寒論의 辨證論治에 採用了한 醫家로는 張志聰과 黃元御가 代表的이며 특히 張志聰은 六經提綱을 解釋할 때 주로 氣化學說을 中心으로 說明하였다.

參 考 文 獻

1. 高世栻纂注 張隱菴傷寒論集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5
2.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 1995
4. 王琦 新編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6. 陸拯主編 近代中醫真本集 中國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7.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9. 張從正撰 張海岑等校注 儒門事親校注 鄭州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